



KOSPI, 매도 우위의 중기 횡보 국면 진행중

1. KOSPI 지수, 장기 상승 추세선 이탈

- KOSPI지수 주봉상으로 작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 지난 7월 말에 이탈. 장기 상승 추세 훼손으로 중장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 부각
- 다만 30주 이평선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가운데 아직 등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 과정 필요
- 중기로는 하락 압력이 소폭 우위에 있는 횡보국면 진행 중. 3,200pt 수준에 중요한 지지대 존재하는 가운데 전일 지지에 성공해 단기 반등 가능성 타진할 수 있음

2. SK하이닉스, 과매도 신호 나타난 상황

- SK하이닉스 전일 급락 과정에서 거래량 1,915만주 수준으로 급등. 7월 평균의 약 7배 수준으로 매도 클라이막스 가능
- 일봉상 RSI 24.46%로 작년 8월 이후 최저, 주봉상 RSI 34.33%로 2019년 초 이후 최저치로 주봉 일봉상 모두 과매도 국면인 상황
- 10만원 수준이 중요한 지지대로 반등 가능하지만 아직은 단기로 봐야 함. 중기로 하락 추세 형성 중이라 단기 반등 후 다시 하락할 가능성 존재

3.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포지션 순매도 전환

-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 순매도 국면에서 반등 중. 최근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순매도권에서 반등할 경우 주가도 단기 저점대 형성하는 모습 보였음
- 옵션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도 14%수준으로 아직 본격 변동성 확장은 아닌 상황. 다만 중기적으로는 바닥권 형성 중이라 이번에 주가가 반등해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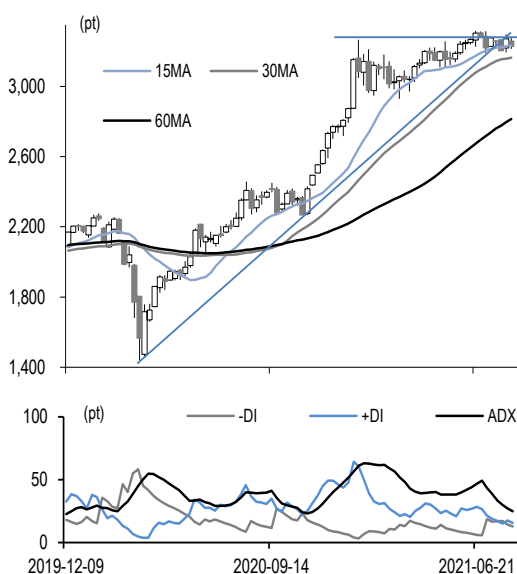
1. KOSPI 지수, 장기 상승 추세선 이탈

전일 KOSPI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약세로 하락했지만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 NAVER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0.38%하락에 그쳤고, 3,200pt도 지지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KOSPI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작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는 점이다. 2003년 초 이후 KOSPI가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상승 추세를 형성할 때, 장기 상승 추세선과 3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 대부분 중기 이상의 조정 국면이 진행되었다. 아직 30주 이평선은 이탈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경계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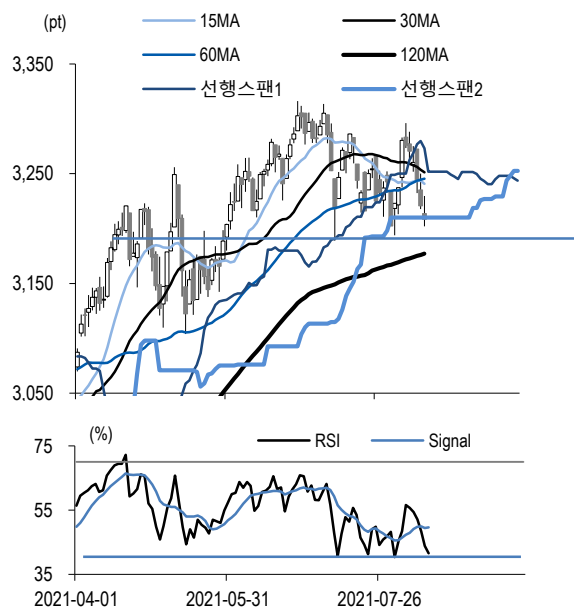
일봉상으로는 3월부터 진행된 중기 상승 추세가 7월에 마감되고, 지금은 하락 압력이 소폭 우위에 있는 횡보 국면이 진행 중이다. 8월 고점은 7월 고점보다 낮아졌지만 지난 7월 9일 이후 3,200pt 수준은 지금까지 지지대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30주 이평선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한 120일 이평선도 하방에 존재하고, 구름대 하단선 역시 지지대로 작용하고 있어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RSI기준으로도 40% 부근이 연초 이후 바닥권인 가운데 전일 41.5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차트1] KOSPI 주봉, 장기 상승 추세선 이탈해 장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 주봉상 횡보 국면 진행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지수 일봉, 하방에 120일 이평선, 박스권 하단선, 구름대 하단선 존재. RSI 역시 전저점 수준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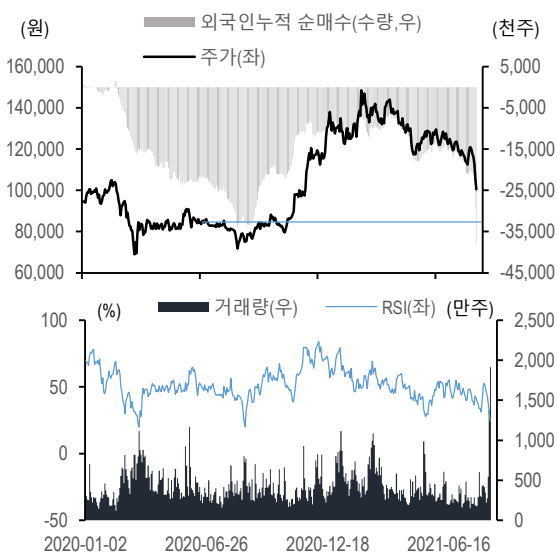
2. SK하이닉스, 과매도 신호 나타난 상황

전일 KOSPI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다.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과 일부 증권상의 목표가 하향조정이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었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8,400억원 순매도했다.

전일 SK하이닉스의 거래량은 1,915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0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고, 7월 평균인 276만주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거래량 급락하면서 하락할 경우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간 RSI지표는 24.46%를 기록해 지난 8월 20일 이후 가장 낮았고, 작년 3월 급락 당시 바닥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일 하락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 수량이 작년 8월 저점을 이탈하게 되었다. 주봉상 RSI는 34.33%로 2019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10만원 부근에서 2018, 2020년 고점대가 존재해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반등이 나와도 단기에 그칠 수 있고, 중기 저점 형성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하락세 제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차트3] SK하이닉스 주가와 거래량, 외국인 누적 순매수, RSI 추이. 최근 거래량 급증하면서 하락해 과매도권 도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SK 하이닉스 주봉과 RSI, 10만원 수준에 지지대 위치한 가운데 RSI 2019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도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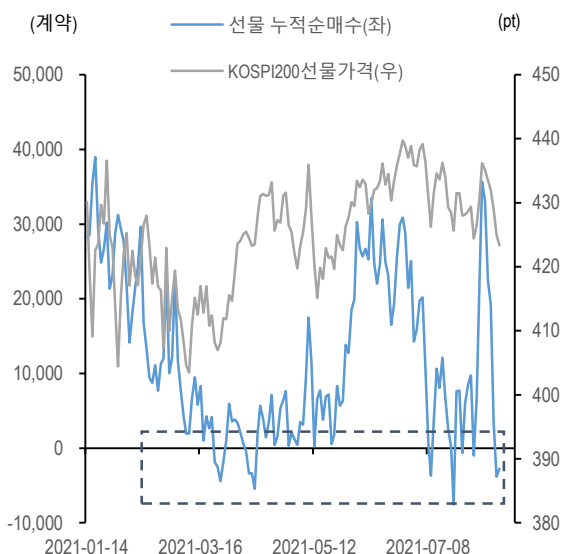
3. KOSPI200 선물 외국인 누적 포지션 순매도 전환

최근 장 중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과거 외국인 선물 매매는 시장 베이스에 영향을 주어 차익거래를 유발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선물 거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빅선물 단위로 환산한 미니선물 합계, 스프레드 포함)은 3만계약대와 약-5천계약대의 순매도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4일에는 35,683계약까지 증가했다가 11일에는 -3,833계약까지 줄어들고 전일은 -2,754계약을 기록했다. 기존의 패턴이 유효하다면 선물 누적 순매수가 바닥권에 도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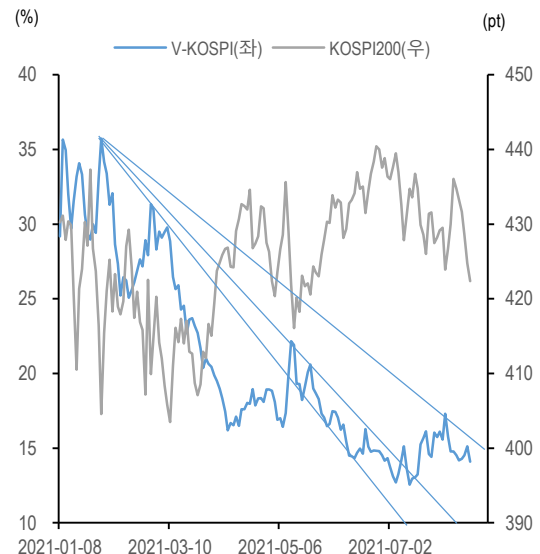
[차트6]에서 볼 수 있듯이 V-KOSPI는 아직 14%대에 머물어 본격적인 조정 국면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옵션시장에서도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모양이다. 다만 V-KOSPI의 하락 속도가 점차로 둔화되는 가운데 중기 저점대를 형성하는 모양이라 점차로 상승 폭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은 모양이다. 따라서 이번에 KOSPI가 반등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차트5]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연초 이후 등락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순매도 시점에 바닥권 형성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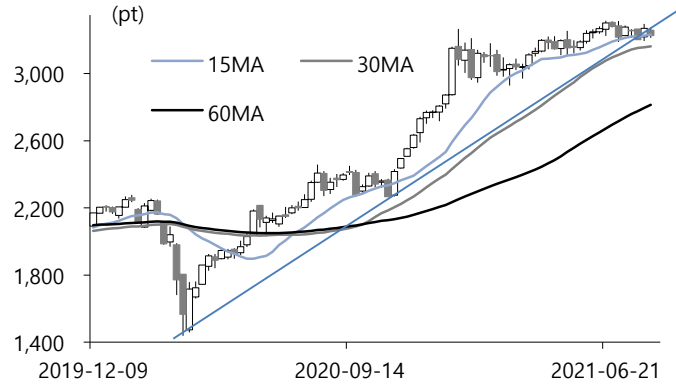
[차트6] V-KOSPI, 바닥권 형성 중이지만 점차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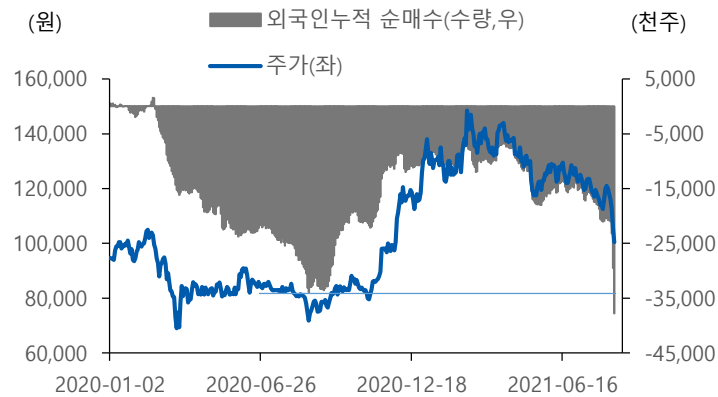
Key Chart

KOSPI 주봉, 작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 이탈해 중장기 조정 가능성 부각. 다만 주봉상 30주 이평선 이탈 확인 과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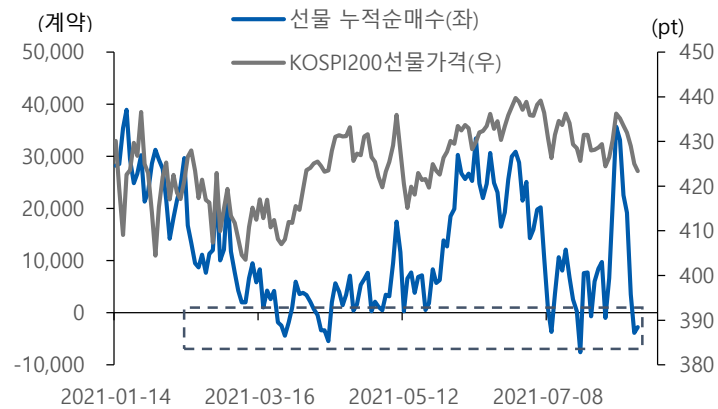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 하이닉스 주가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수량. 최근 외국인 순매도 규모 확대하면서 작년 8월 저점대 이탈한 상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연초 이후 등락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순매도 시점에 바닥권 형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